

David A.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11회차, 히브리서 12: 4-29: 훈련받는 시민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개요를 찾고 고대 텍스트를 어느 정도 다루기 쉬운 자료 블록으로 나누려고 하면서, 우리는 고대 작가가 결합하려고 했던 것을 산산이 조각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새로운 섹션을 시작하는 것은 인정하건대 인위적입니다. 설교자와 학자들이 11장 40절과 12장 1절 사이에서 하는 전형적인 중단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의 욕구의 결과는 훨씬 더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저자가 12장 1~3절에서 구성하기 시작한 운동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12장 5절에서 11절로 빠르게 넘어가 훈련 또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는 관련 없는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고대 세계에서 운동 훈련을 포함했습니다.

파이데이아, 형성 교육 또는 훈련의 렌즈는 저자가 수신자에게 이웃의 적대감에 대한 경험을 보는 데 제공하는 두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12:12~17에서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과 피해야 할 위협적인 함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모두 경쟁과 형성 훈련의 렌즈를 통해 상황을 보는 논리적인 결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행동 과정을 채택하는 데 대한 뒷받침적인 근거로 저자는 18~24절에서 이전에 하나님께 접근했던 방식, 즉 엄격한 금기와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접근했던 방식과 수신자에게 특권을 준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에 대한 축하하고 확신에 찬 접근 방식 사이의 일종의 총괄적 대조를 제시합니다.

12:25에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경고하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서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이어서 26~29절에서 저자의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강력한 진술이 이어지고,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영역, 즉 이 물질적 창조의 일부인 하늘과 땅이 제거되고

, 믿는 이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으로 영접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개서 2장 6절에 대한 다소 독특한 해석으로 뒷받침됩니다. 다가올 약속된 선,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영접에 비추어 볼 때, 저자에 따르면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28절에서 권고하듯이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응답은 그가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실제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구체화할 것입니다. 수신자가 감사의 응답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29절에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일하게 현명한 행동 방향이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12장을 마치면서 저자는 설교 전반에 걸쳐 나타난 위협의 암시로 돌아가서, 이 강력한 신성한 후원자에게 바쳐진 감사의 표현, 충성심과 순종의 응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청중들에게 촉구 합니다. 12장 4절에서 11절에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형성적 훈련으로서 그들의 상황의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저자의 교육 수준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는데,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수사학 교육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잘 알려진 논증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자의 목회적 목표에 대한 이 구절의 기여, 특히 듣는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는 12:1~3에서 이 권고의 부분을 열었던 운동 이미지를 계속하여 12:4에서 형성적 훈련의 이미지로 이끕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아직 피를 흘리는 지경까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1~3절의 달리기에서 일대일 전투의 어떤 형태로든 이 믿음의 삼중 경기의 또 다른 사건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아마도 레슬링보다는 권투나 판크라티움이라고 알려진 무제한 스파링 경쟁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레슬링은 피가 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자들이 이 지점까지 그들의 기독교 신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단순한 표시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고통을 받은 청중들이 아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겪으신 고통에 근접하지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려는 시도입니다.

그들 중 누가 이미 기절하거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청중에게 그들의 권투 경기가 죄에 대한 것이라고 상기시키는 것도 수사학적으로 전략적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이웃의 압력은 온건하거나 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힘의 표현이며, 그들을 목졸라 죽이거나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그들만의 조건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기독교 단체와의 연합을 철회하는 것으로 죄에 대한 이 경기에서 부끄럽게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저자는 인기 없는 행동 방침에서 인내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일반적인 수사적 도구인 운동적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제 두 번째 그러한 도구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11절까지에서 아들딸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권면을 잊었다고 읽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육적 징계의 목적을 위해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아들과 딸에게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징계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사생아요 적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징계자로서 있고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우리는 더욱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징계하였지만, 그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징계하시어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든 징계는 당장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근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은 그것으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회중이 견뎌왔고 인내의 대가로 계속 견뎌내고 있는 어려움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모적 형성적 징계로 해석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어 단어 파이데이아와 관련 형태가 지배적이며, 적어도 7번이나 나타나 이러한 해석적 렌즈를 강화합니다. 세상에 의한 거부의 경험은 전략적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신호로 변형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과 딸로 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하나님이 그들의 성격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도시, 그들이 받을 문턱에 있는 왕국의 미래 시민에게 적합한 미덕을 갖추게 하는 수단입니다. 수치심과 소외의 경험은 사실상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존중받고 은총을 받은 지위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자는 이 권고의 부분을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낭송하면서 시작하며, 특히 하나님과 수신자 사이의 아버지-아들, 아버지-딸 관계를 확립하는 본문으로 이것을 인용합니다.

잠언 3장의 히브리어 버전과 같은 본문의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비유의 요소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칠십인역은 비유의 질을 흐리게 하여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모든 아이를 징계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비유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실제 입양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의 이러한 수정은 저자의 목적에 더욱 유용한 텍스트를 만듭니다. 잠언 자체가 징계의 징별적 모델을 구체화한 반면, 대부분의 그리스-로마 작가와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한 유대인 작가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을 징별적이라기보다는 형성적 또는 교육적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잠언 3, 11, 12를 낭송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저자는 반복적으로 파이데이아(paideia), 형성적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만, 꾸지람을 듣거나 실제로 우리에게 채찍이라는 단어를 제공하는 동일한 어근에 기반을 둔 동사 마스티고이(mastigoi), 즉 징계하는 것과 같이 처벌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는 잠언 본문의 측면을 다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자의 권고에 대한 눈에 띄는 비교 텍스트는 세네카의 섭리에 대한 짧은 논설인 데 섭리(De Providentia)에 나타납니다. 1세기 전반의 라틴 철학자인 세네카는 또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신성한 부모의 훈련으로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 세네카는 현자가 신의 제자, 모방자, 진정한 자식이라고 쓰고, 미덕의 온유한 집행자가 아닌 그 훌륭한 부모가 엄격한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매우 엄격하게 교육한다고 말합니다.

신은 지혜로운 사람을 아들처럼 양육합니다. 신은 현자를 시험하고, 용서하고, 신의 자아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네카의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신이 승인하고 사랑하는 자를 신은 강하게 만들고, 시험하고, 훈련시킵니다.

세네카는 신의 부성적 훈련을 스파르타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인내와 용기라는 소중한 미덕을 얻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채찍질하는 방식과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이 스파르타식 채찍질이 처벌이 아니라 증거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내와 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네카와 히브리서 모두에서, 이러한 고난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용감하게 견뎌낸 것이 수련자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열매에 중점을 둡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저자가 청중에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 신이 그들을 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들을 형성하고 훈련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잠언 3장을 낭송한 것을 근거로 하여, 형성적 훈련을 목적으로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과 딸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이 권고의 강조점은 인내심에 있으며, 저자는 이미 10장 32절과 35절에서, 그리고 얼마 전 1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수신자들에게 인내심을 반복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저자는 인간 아버지에 의해 양육된 모든 아이들의 경험과 일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고를 논증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반대의 흥미로운 주장으로 이를 이어갑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훈련이 없다면, 당신은 사생아이고 진짜 아이가 아닙니다.

저자는 여기서 꽤 수사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비난과 상실의 경험을 은총과 명예의 표시로 만들고, 더욱 놀랍게도 그러한 고난의 부족을 은총과 불명예의 표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성하고 그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탁월한 아들 예수의 성격을 형성하신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설교에서 앞서 들었듯이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자가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한 이 훈련에 참여하신 예수 자신의 경험을 기억할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도 아들의 명예와 덕을 공유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징계에 참여하는 한, 그들은 또한 영광의 최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저자가 3장 14절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단어 *metachoi* 를 12장 8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징계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영광의 최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연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저자는 그의 권고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 반대에서 이 주장을 따르고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훈련자로서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두었고, 우리는 경건하게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상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사이의 이러한 구별에는 영이 육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내재된 논리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신은 더 크고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 존재를 낳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은 우리가 신의 훈련에 경건하게 복종하는 것에 더 합당하며, 우리가 그 훈련에 저항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한 복종의 결과는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10장 37-39절에서 조금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은 의미로 여기에서의 삶을 들을 것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성적 훈련에 복종한 결과로 나타나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종말론적 생존으로서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37-39에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에 속한 사람만이 종말론적 대격변에서 구출되어 흔들리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지상의 부모와 신성한 부모를 다시 대조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지상의 부모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듣는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훈련의 가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 지상의 부모의 훈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레위 율법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가 거룩하듯 거룩하라는 명령의 성취입니다. 저자는 잘 알려진 격언을 확장하여 해석하여 이 권고의 일부를 마무리합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열매를 의미하는 *karpos* 라는 키워드를 발견하는데 , 이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수신자들에게 그가 떠드는 격언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교육적 훈련인 *paideia*는 현재로서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인 *karpos*를 맺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근본적인 격언의 진실이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이 격언을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적 틀로 적용하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계속 인내하라는 저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운동의 은유는 여기서 다시 훈련이라는 단어 *gegumnasmenois* 로 미묘하게 등장하는데 , 이는 그리스 도시 국가의 미래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신체적 능력과 힘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받은 *gymnasion* , 즉 체육관의 언어적 메아리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헌신을 위해 견뎌내는 이러한 운동의 목표는 저자에 따르면 그들의 영혼과 삶에서 의로움이나 정의의 미덕인 *dikaioisune*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그리스-로마 윤리 철학에서 찬양하는 네 가지 주요 미덕 중 하나이며, 물론 구약 성경 전통에서 장려하는 핵심 미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훈련 연습을 통해 신자들의 도덕적 능력이 형성되고 강화되어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동료 신자들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따라서 의로움으로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인내의 결과는 이 소중한 가치, 이 소중한 미덕이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형성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도시의 명예로운 시민으로 사는 데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아들과 딸로 부르는 권고는 듣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훈련 연습에 용감하게 돌아서서 그러한 훈련에서 물러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대신 의로움에 대한 헌신을 늘리고 강화하는 과정을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물러나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자는 반대로, 믿는 이들이 고귀한 추구를 포기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한, 이웃의 적대감은 실제로 하나님의 목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적절한 방향은 이러한 형성적 연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육적 규율과 훈련 사이의 연결은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직접적인 권고의 재개를 특징짓는 운동 언어로 돌아가는 다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곧게 하고, 너희 발이 곧은 길을 만들어 절름발이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치유되도록 하라. 저자는 직접적인 권고를 재개하면서 성경적 언어를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는 이사야 35장 3절의 언어, 강하고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라를 상기시킨다.

이사야는 그의 맥락에서 사막의 개화와 그것을 통해 준비된 고속도로에 관한 신의 구원에 대한 신탁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을 축하의 노래 가운데 시온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며 그들의 결의를 굳건히 하고 그들의 희망을 높이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청중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종말론적 구원에 비추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똑같이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제 모임이 기다리고 있는 천상의 도시로 그들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며 , 저자는 곧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맞서 싸우는 좋은 권투 선수의 자세로 손을 들어 올리고, 흔들리지 않는 전진을 유지하며 가드를 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또한 잠언 4장 26절에서 “너희 발에 바른 길을 만들고, 너희 길을 굳건히 하고, 곧게 하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잠언의 맥락은 악한 길보다는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결은 불의한 길에 대항하여 신성한 후원자에게 반응하여 정의로운 행동 방침을 홍보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저자가 이 본문을 자신의 권고에 통합하도록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정의롭게 걷는 것은 주의 깊게 지도되고 처방된 운동을 통해 절름발이를 치료하는 물리 치료의 영적 대응물과 거의 같습니다.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여기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 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서처럼 부도덕하거나 속된 자가 없도록 조심합니다.

이 구절의 서두에서 저자는 시편 33편 14절을 회상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 공동체 내의 평화로운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저자는 외부인에 대한 평화로운 성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기독교인에 대해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역동성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욕설을 욕설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매력적으로 살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설교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열어 주신 거룩함의 상태로 온전히 사는 것,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위해 그들을 따로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바로 몇 구절 전인 12장 10절에서 신성한 징계의 결과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신성한 징계를 견뎌내고 이 과정에서 계속 전진하라는 권고를 다시 말한 것입니다.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신자가 마지막 날에 신의 현존에 들어갈 때 신을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평화와 성화를 추구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손을 들고 무릎을 굽건히 하여 신의 형성적 훈련을 견뎌낸다면, 그들은 마침내 신을 보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여러분 중 누구라도 신의 은사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모든

신자가 목표를 향한 각 개인의 인내를 위해 공유하는 공동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처, 즉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기 전에 속거나 꼬드겨져 멈추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탈출기 세대가 하나님의 선물에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자는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더럽혀질 수 있는 썩은 뿌리가 돌아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이 권고는 신명기 29장 17절, 특히 칠십인역 번역본을 재구성한 것으로, 모세가 언약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우상에 집착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괴로움의 뿌리가 되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소수의 배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종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 전 자매와 형제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낄 환멸과 결의의 약화를 표현하는 비유적인 방법입니다.

저자는 에사우의 예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된 권고로 옮겨가며, 이 예를 통해 저자는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동안 형식적인 배교이든 실제적인 배교이든 배교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못을 박고자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에사우처럼 간음하거나 불경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만아들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축복을 상속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그것을 찾았지만 회개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사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한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경고를 매우 강하게 떠올리게 하는데, 마치 회개의 시작 관문으로 돌아갈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에사우는 창세기에서 특히 음행자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2성전 시대의 전통은 에사우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창세기 26장 32절에서 발견되는

히타이트 아내와의 결혼을 근거로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음행을 불신앙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한 설교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묘사된 가나안 문턱에서 광야 세대가 실패한 이야기인데, 이는 그러한 이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이 몸이 사막에서 소진될 때까지 음행을 참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사우의 불경건함이나 세상적인 생각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그의 장자권으로 표현된 그는 굶주림이라는 즉각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구제를 더 좋고 오래 지속될 소유물보다 택했습니다.

에사우의 모범은 공동체의 과거 모범, 모세나 순교자, 예수의 모범에 대한 대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선을 위해 극단적인 일순간의 고난을 계속 견뎌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에사우의 모범을 통해 전략적 비유를 소개합니다. 사회의 재물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것이며, 렌즈콩 스투 한 그릇이 장자권에 대한 것입니다.

에사우가 자신의 장자권에 비해 식사의 상대적 가치와 이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은 수천 년 동안 그의 기억을 더럽혔고, 선택을 현명하고 덕행 있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반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신자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장자권을 팔아치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초대받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사우의 예를 제시하면서 청중이 직면한 목회적 필요에 대해 자신의 제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요소를 혼합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에서 에사우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더 큰 몫을 차지할 권리인 장자권을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 후반부인 30절에서 36절에서 에사우는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팔아치운 것이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졌어야 할 축복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삭을 속여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자신에게도 주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에사우는 수년 전에 형과 맺은 거래의 결과로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장자권과 축복을 혼동하여 에사위를 이전에 평가절하하고 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년 전에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에사위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삭의 임종 옆에 서 있는 동안 그가 잃은 것을 되찾을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매우 비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축복이 더 이상 남지 않았나요? 이것은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사위가 던져지는 생생한 인상을 주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자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사회와의 평화로 바꾸는 결과와 연결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에사우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자들은 회개할 공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 자체는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에게만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회개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추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에서의 예는 특히 648년과 1026년과 그 이후의 경고를 강력하게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거둬진 은혜를 받고 그것을 버린 자들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나 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에사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힌 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과 훨씬 더 축하하고, 매력적이고, 환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초대받는 방식 사이의 차이를 묘사하면서 끈기 있게 노력하라는 권고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질 수 있고 불타는 것, 불과 어둠과 침울함과 회오리바람과 나팔 소리와 말의 소리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말을 더 길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 환상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과 축제 찬송가와 하늘에 기록된 만아들의 회중과 모든 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로운 자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스어로 gar라는 단어는 저자가 이 대조적인 두 이미지를 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이 누리는 이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전례 없는 환영과 아름다운 환영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을 거의 요구한다.

신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의 대조는 더 이상 두드러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영역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영속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표시되었고 엄중한 처벌을 수반하는 순수 금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에 대한 경축적인 예배로 표시됩니다. 저자는 짧은 범위에 풍부한 이미지를 모아 청중에게 누적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는 각 개별 구성 요소의 개별적인 의미나 그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넘어섭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특히 출애굽기 19 :12-19와 신명기 4:11-

12에서 시나이에서 신을 만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인용합니다.

여기서 동사 접근은 *you have approached*에서, 설교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일한 동사의 또 다른 형태이며, 저자는 청중에게 계속 가까이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설교 전반에 걸친 초대에 대한 일종의 요약を提供합니다. 저자는 인간과 동물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산을 만지는 것조차 명백히 금지하는 금기로 둘러싸인 두려운 접근을 부정합니다.

불길한 우울함, 무서운 소리, 목소리,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열어주신, 듣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접근 방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모세가 여기서 두려움을 고백한 것은 사실 신명기 9장에서야 나중에 나타나고, 저자는 그것을 문맥에서 다소 벗어나서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을 언급했는데, 이 사건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의 신의 현현, 즉 신의 현현보다 훨씬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자가 예수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뚫린 두렵고 제한된 하나님 접근에 대한 제시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2절 18~21절에서 창조된 이 무서운 그림과 병치하여 저자는 그리스도인 순례의 끝에 있는 목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제 그것은 더욱 빛나게 보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시나이산이 아니라, 축제의 기쁨이 있는 시온산이 그들의 여정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천사들이 천상의 예배에 모인 축제적인 예배의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 산을 둘러싼 것은 무섭고 우울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천사 무리가 찬사를 보내며 모인 축제 노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통치자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맏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장자의 상속을 버린 예사우와는 달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붙잡고 영원한 상속을 받는 데 이르렀으며, 탁월한 장자이신 예수의 상속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시민의 이름이 도시의 명단에 등록되는 일반적인 관행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시민으로 등록되고, 이 세상에서 형성적 훈련의 경험이 그들을 준비시킨 시민의 권리에 온전히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13-16에서 저자가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기초가 있는 도시, 하나님 자신의 기초가 있는 도시를 찾았다고 말했듯이, 그리고 지금 듣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죽은 믿음의 사람들 이 찾던 것이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초대하는 이미지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서 이 축제에 임재하시며,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이웃과 같은 명예로운 법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완전해진 의인의 영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완전함이나 완전하게 함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고, 그들 스스로가 선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곳으로 갔다는 점에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40절에서 읽듯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온전해졌습니다.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과 도성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청중들 앞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과 뿌림의 피의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 임재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설교의 중심적인 설명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한다고 애매하게 언급됩니다. 물론 예수의 피는 정의와 복수를 외치는 아벨의 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수용의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18-24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계속 견뎌낸다면 듣는 사람들이 확실히 소유하게 될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편의주의나 이점이라는 주제에 대한 암묵적인 호소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재의 이점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그러한 호의를 진노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25-29절은 그러한 심의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 다룰 것입니다.

저자는 앞으로 그들이 물러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그는 이웃들이 가한 압박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계속 물러설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하늘 도시에서 그들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함께 환호하는 축하 행사가 있고, 모든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집으로 모여서 완전함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손짓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하늘에서 온 더 나은 말씀의 대조는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마지막 경고, 즉 마지막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쟁을 설정하기도 했으며, 이는 설교의 첫 번째 권고를 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쟁과 매우 밀접하게 대응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자를 거절한 후에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온 한 경고를 돌아설 때에 우리가 더욱 피하지 못하겠느냐 그 음성이 그때 땅을 진동시켰으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만 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한 번만 더 나타내심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남기기 위하여 제조된 것들이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이 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되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땅에서 그들에게 경고한 사람은 시나이 언약의 대변인인 모세로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 아니었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두 경고의 근원임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나이에서 땅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땅을 흔들었습니다.

사사기 5장 4~5절과 시편 67편 8절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으로 시나이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의 일부입니다. 저자는

이제 학개서 2장 6절을 땅과 하늘을 결정적으로 흔들고 제거할 것을 말하는 신성한 신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만 하늘과 땅을 흔들 것이다.

저자는 이 학개서 본문을 수정하여 이 미래의 흔들림에 하늘이 땅과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용문에 단어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순서를 뒤집어 대조를 더 분명하게 하고 하늘의 흔들림을 더 두드러지고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낭송의 처음 두 단어, 그리스어로 *eti hapax*라는 단어, 영어로는 세 단어만 한 번 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단번에 흔들어 버리실 것이지 다시 한 번만 흔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창조물, 즉 땅과 눈에 보이는 하늘을 결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흔들고 제거한다는 약속으로 읽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소개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영역의 일시적 본질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의 영원한 본질을 대조한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되고 흔들리는 모든 것은 제거될 것인데,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과 오직 그것만이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의 독특한 종말론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은 새로워지지 않으며, 다가올 시대는 현재 시대가 지나간 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창조물 너머에 이미 존재하며,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2차 창조 질서가 제거된 후에 남는 전부일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일원으로 남는 것은 생존 자체에 필수적이며, 아마도 이것이 저자가 구원을 믿는 이가 1장 14절에서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분해될 예정인 물질 세계에서의 구출과 흔들림을 견뎌내는 유일한 영속적인 영역으로의 진입은 구출이며, 궁극적으로 이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흔들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성소로의 접근을 막는 첫 번째 방을 제거하는 것과 상응합니다 .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저자가 9장 9절과 10절에서 성막의 물리적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을 떠올려 본다면 말입니다.

이 종말론적 흔들림과 눈에 보이는 하늘의 제거 후에 신성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아들들의 고객인 많은 아들과 딸들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 기대는 저자가 세상적 소유물, 세상적 시민권, 세상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라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되며, 오직 신자의 하나님 영역에서 더 나은 소유물만이 남을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신의 뜻에 대한 유일한 적절한 반응은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어는 *echomen* 입니다. *charen* . 우리가 은혜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 *charis* 에서 유래한 *Charen*은 여기서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저자가 이 권고를 선물, 즉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사의 끈기에 대한 호소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저자의 주장과 권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혜택, 수혜자들이 시민으로 등록될 영원한 고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비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경건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euarest 라는 어근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단어인 *euarestos* , 즉 기쁘게 하는 것을 만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소개된 단어 그룹으로, *pistis* , 확고한 신뢰 또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용어가 나중에 13장 16절에서 21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2:28과 13장의 후반 구절 사이의 언어적 연결은 13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일상 활동, 서로 나누고 믿는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사회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상호 지원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촉구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상실과 그 상실에 대한 매일의 상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설교 전반에 걸쳐 저자는 믿는 이들이 대신 가진 것, 즉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것, 너무나 큰 이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득은 비교해보면 상실이 사소할 정도로 큼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한 적절한 이미지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 이미지는 신명기 4장 24절에서 따온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읽습니다.

이 이미지는 12:25의 경고를 강화하고, 또한 배은망덕한 자가 적들을 삼킬 준비가 된 열렬한 불길에 직면하는 10장 26-31절의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29절은 설교 전반에 걸쳐 저자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감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묵회 기법을 요약해서 반복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그의 관대함의 크기에 대한 고려,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그의 선물에 불의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내릴 그의 심판의 위험에 대한 고려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29절까지에서 청중을 위한 수사적 목표를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경험에 대한 사고의 틀로 도입한 운동 경기의 해석적 렌즈를 보완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형성적 훈련의 해석적 렌즈를 추가하여 어려운 경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명예로운 입양의 증거와 성격 형성의 기회로 바꿉니다.

이런 렌즈를 통해 저자는 청중이 그러한 경험을 힘겨운 길이 아닌 명예로운 길로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경험이

사회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형성하는 것을 더 잘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전개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은 청중이 예수께 대한 충성의 길에서 계속 가까이 다가가 함께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앞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들의 영원한 유산에 대한 축하의 환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경고와 그 경고에 대한 우주론적 근거를 통해, 청중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고 청중이 감히 마주치지 못할 수 없는 포괄적인 도전이라고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청중의 눈앞에 매우,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지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삶의 나머지 기간을 계속 살아가려는 도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종말론적 흔들림을 만나고 살아남아 일시적인 우주의 운명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도전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자는 감사에 대한 그의 호소로 매우 명확하게 돌아갔는데, 이는 그의 권고와 청중에게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응답이 그들의 심의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의 경고의 대부분을 하나로 묶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우리 자신의 제자도와 신앙 공동체의 형성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할 때, 우리 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이 현대 학자와 해석자들에 의해 비판된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학대적인 양육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제시하거나 가정 폭력에 대한 영장으로 읽거나 고통을 당연한 처벌로 해석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자가 낭송하는 잠언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일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저자가 그 본문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본문에서 징벌적 징계를 말하는 측면을 무시하고 대신 형성적 징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또한 듣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고 암시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죄인들의 적대감, 즉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적대감의 결과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저자가 어떤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질병이나 병 자체, 가정 폭력이나 빈곤이나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복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특히 신자들이 예수님과 신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 신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려는 헌신의 결과로 겪었고 기꺼이 견뎌낸 비난, 모욕, 학대, 박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저자의 원래 목회적 맥락 밖에서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신앙 고백, 기독교 단체와 함께 모이고, 신의 계명과 복음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억압적인 환경에서 박해받는 교회에 격려를 제공하며, 이는 사람들이 호스트 사회와 갈등을 빚게 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언급한 설정과 매우 유사한 설정이며, 따라서 저자가 형성적 훈련의 이미지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설정에서든 그리스도인에게 격려가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종교의 사유화나 개인화로 인해 우리에게 부과된 제한을 넘어서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투자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발견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속 전진하도록 돕도록 허락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예사우의 모범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딸로서의 선천적 권리를 비례적으로 한 끼 식사와 바꾸는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예사우의 모범은 적대적이거나 억압적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저자가 자신의 청중들에게 직면했던 것처럼, 수십 년의 삶과 편안함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순종의 성실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격려합니다.

따라서 매우 심각한 억압에 직면하여 굴복하는 것은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선천권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에사우의 사례는 기독교가 대체로 길들여져 무해하고 사적이며 근본적으로 무관한 종교가 되어 평소와 같이 사업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용인될 수 있는 서방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직면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길들여진 제자도를 사들임으로써 선천권을 팔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신과 우리 지역 사회, 국가, 세상에 대한 그의 비전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지만 우리가 그의 목표에 봉사하라는 그의 부름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만족하는 구세주를 만들었는가? 에사우의 예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의 사소한 오락과 추구를 선호하는지 묻도록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마지막에서 저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반응을 높이는 것은 감사가 우리 삶에 통합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핵심 가치임을 시사합니다.

저자는 이 설교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점점 더 잘 알게 하고, 우리의 자격 의식, 우리가 가진 것을 스스로 획득했다는 생각, 이 세상의 재화나 오락이나 오락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은총을 받고, 호의를 베풀고, 풍요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한 공정한 보답을 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우리 자신을 투자하도록 이끍니다. 증거, 순종, 봉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고객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위대한 후원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성실함을 가져오는 의제를 형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려는 헌신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그보다 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자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자는 구원이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비성경적 관점을 제쳐두고, 오히려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나의 반응성, 즉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익에 나 자신을 바치는 것 사이의 지속적인 춤의 최종 결과라는 성경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재물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헌신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표현받을 만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밝힙니다.